

조동종 총무원장 심월 스님

을 중무계획·주요사업

법상종 총무원장 학산 스님

목조선 대중화에 역점

화합·교육으로 위상제고



조동종의 전통적인 수행법인 목조선이 생활속의 수행법으로 자리 잡아 나갈 수 있도록 대중화 운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목조선은 현대사회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정신적 공황을 풀 수 있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조동종과 법상종은 '목조선 대중화'와 '승가화합'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올해 사업을 전개한다. 이의 실현을 위해 양 종단은 목조선 보급을 위한 시민선방 개설, 조직정비 및 총무원사 건립불사를 각각 추진한다.

총무원 청사와 원찰 건립도 올해 역점사업으로 추진한다. 지난해 총무원청사 건립계획을 제시하면서 1차 부지매입 기금 2억여원을 올해 추가적으로 조성할 기금으로 내년부터는 청사를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시민선방 개설 장려
종단 임원 안거 실시

뜻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입니다. 지난해 종도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적지 않은 성과를 얻었지요. 모든 종도들이 너, 나 구분 없이 종단 불사에 일한다면 조동종의 비약적인 발전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5년여간 종단이 내용을 겪으면서 종단 조직이 상당부분 흐트러져 있습니다. 지금은 화합종단으로 가기위해 면모를 일신하는 과정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올해는 종도화합을 최우선으로 삼고 종단의 기강을 바로잡아 나갈 것입니다."

법상종 총무원장 학산(鶴山·사진) 스님은 '화합'에 중점을 둔 올해 종단운영 계획을 제시했다. 승가화합을 바탕으로 총

총무원사 건립 박차
단일계단 통해 수계

무원사 건립, 종도교육체계 확립 등 종단의 오랜 숙원사업을 벌여 나갈 방침이다. 학산 스님은 연수원을 포함한 총무원사 건립불사가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임기가 끝나는 내년부터 부지매입과 불사 세부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교구 재편과 종정 스님 추대는 먼저 해결되어야 할 과제라는 것이다.

학산 스님은 종단재산 보호를 위한 재단법인 설립 의지를 피력했다. 이를 위해 뜻을 같이 하는 사찰을 중심으로 임기 내 법인을 설립하고 추가적으로 참여사찰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사찰은 사유개념이 적용될 수 없는 재산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사찰을 사유물로 인식하는 스님들이 있습니다. 참여사찰이 많고 적음은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재단법인 설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데 의미를 두고 차근차근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이 외에도 학산 스님은 종단 차원의 남골시설 설치와 폐교를 활용한 교육시설 확보 등도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글=박봉영 기자·사진=고영배 기자



진각종 원정각 대종사 열반10돌 추모불사

진각종 제2대 종인을 지낸 원정각 대종사의 열반 10주기를 맞아 추모 헌공 대례 불사가 2월 25일 서울 도선동 밀각심인당에서 봉행됐다. 해일 종인을 비롯해 효암 통리원장, 수성 서울교구청장 등 2백여명이 참석한 이날 불사는 육법공양, 훈향정공, 추념강도, 경전봉독, 추념사 등으로 진행됐다.



태고종 대구·경북 종무원장 취임

태고종 제13대 대구·경북교구 종무원장 명진 스님 취임식이 2월 25일 대구 깃배위 유스호텔에서 열렸다. 이날 법회에는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 스님, 동화사 주지 지성 스님, 대구불교방송 사장 성타 스님 등 3백여명이 참석했다.

종단소식

27기 수계자 연수

태고종은 2월 23일부터 25일까지 서울 봉원사에서 지난해 득도한 27기 수계자 연수를 실시했다. 교육은 23일 입재식을 시작으로 '태고종과 승려' '포교방법' '실법론' 강의와 종단기구 및 종무행정 안내, 종단 원로 인사 등으로 진행됐다.

을 사업·예산 심의

본원종(총무원장 대화)은 3월 3일 오전 11시 서울 평창동 연화정사에서 정기중앙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총회에서는 2003년 예

산·사업 보고의 건, 2004년 예산·사업계획 심의의 건, 종단 남달달 불사 보고의 건 등을 다룬다.

비정년 전임교원제 도입

진각종립 경주 위덕대는 올해부터 채용 교원에 대해 정년이 보장되지 않는 '비정년 트랙 전임교원제도'를 도입한다. 위덕대는 학교법인 회담학원 이사회에서 현행 강의전담 교수제를 비정년 전임교원으로 전환하는 등의 관련규정을 개정함에 따라 3월1일자로 4명을 비정년 트랙 전임교원으로 채용했다.

총화종 비구니회 활성화

4월 집행부 대폭교체

총화종 전국비구니회가 조직 활성화에 나선다. 전국비구니회(회장 지혜)는 2월 25일 남양주 수진사에서 전체 비구니회의를 열고 비구니 위상 강화를 위한 조직 활성화에 나서기로 결의했다.

동방대학원대학 교양강좌 개설

태고종 총립 동방대학원대학교(총장 정성욱)는 3월 4일부터 매주 목요일 오후 7시~10시 6주간 공개 교양강좌를 실시한다. 이번 강좌는 불교문예과, 민속문화과, 문인서화과, 교양일반과 등 4개과로 나누어 진행된다.



천태종, 개성 영통사에 기와 전달

2월 23일 4차분 6만5천원의 기와를 14대의 18톤 트럭에 실어 개성으로 보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모두 33만장의 통일기과가 지원됐으며, 앞으로 3월 8일과 29일 두 차례에 걸쳐 13만장이 추가로 전달된다.

2004년도 불교문예창작과 (3년 과정) 신규개설. 불교문학의 양성과 전문프롤인을 위한 과정. 자비수관(慈悲手觀) 수행자모집(3개월 과정). 사불수행반 모집(5개월 과정).

불교한문학과 (3년과정) 장자·한문법대강좌. 중국전국시대 사상으로 제자 백가 가운데 도가의 대표자인 장자는 저서<장자>를 통해 중국인들의 도사상을 설교한다.

법사교육(3년과정) 팔천송반야경 대강좌. 부처님의 법음이 설해져있는 경전들중 산스크리트, 팔리원전에서 직접 번역한 팔천송, 반야경전으로, 부처님도 기원정사에서 반야사상을 21년간 섭렵하시었다.